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

간협,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 펼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펼치고 있다. 피켓시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회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11월 20일 첫 피켓시위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4월 5일 간호법안(김세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및 간호·조산법안(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공청회를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임에 따라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시위를 벌이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21~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WWF) 및 아시아간호연맹(AANA)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 간호협회 대표단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은 세계 간호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간호법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간호법이 제정될 진심으로 성원하고 지지하며 서명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제간호협회(ICN) 대표자회의에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ICN이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으며, 지지서한을 보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100만명 서명을 지난해 6월 달성한 바 있다.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지난 10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각당 대표와 국회의원 60명이 참석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도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전국 간호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간호사들은

“발의된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같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간호법안’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올해 4월 5일 대표 발의했으며,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다.

‘간호·조산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올해 4월 5일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규율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협 대표자회의 ... 주요사업 추진결과 점검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11월 30일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중앙회 사업시행결과 및 회계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발표했으며, 현안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이 회원들의 협력과 지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하며, 평가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한국간호역사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포괄수가에 야간간호료 별도 산정키로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등을 보고 받았다.

0...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질병군별로 보면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향문(현황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포괄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 8.)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 5.)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 일부 개선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문

수용, 임·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 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당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는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0...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

대장암 및 위암 치료성과 최고 수준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20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됐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으로 프랑스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해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자료 중 한국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성기 진료=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이며, 2017년은 3.2%로 OECD 평균 7.7%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이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았다. 30일 치명률은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이다.

△만성질환= 전신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각각 41.9명, 129명)보다 높았다.

△암 진료=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 성과를 보였다. 또한 폐암 25.1%,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84.4%로 OECD 평균(각각 17.2%, 83.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5년 생존율은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이거나 암 완치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능력 확률이다.

△외래약제처방=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인 다제병용 처방률은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처방량은 0.9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낮았다. 외래 항생제 처방량은 26.5DDD/1000명/일로 OECD 평균(18.8DDD/1000명/일)보다 높았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

2019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면허신고센터 : ☎1644-1755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는 평균 용량이다. △정신보건= 조현병 환자 초과 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평균(각각 4.0, 2.9)보다 높았다. 초과사망

비는 일반인구집단(15~74세)의 사망률(사망인구 수/일반인구 수)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를 말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글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글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유통관리 기업)